

상담심리학의 최근동향*

김 계 현
 (서울대 교육학과)

상담심리학의 최근 경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주제를 다룬다: (1) 상담심리학의 성격 정의, (2) 상담심리학의 적용분야, (3) 상담방법, (4) 상담과정-성과 연구, (5) 심리학 타분야와의 관계. 첫째주제에서는 상담심리학이 임상심리학과 중복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상담심리학의 정체성문제를 논의하고, 둘째주제에서는 상담심리학의 전통적인 적용분야인 진로/직업상담과 심리상담의 최근동향 그리고 새로 부각되는 적용분야들을 논의한다. 셋째주제에서는 상담방법에 대한 최근의 이론수렴 경향을 논의하고 단기상담방법을 소개한다. 네번째주제에서는 상담과정-성과 연구에서 최근 주목받는 주제들과 새로운 연구방법의 동향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타분야와의 관계는 주로 사회심리학의 지식이 상담심리학에서 활용되어진 부분들을 상술한다.

1. 상담심리학의 성격 정의

한 학문이 어떤 것인지를 몇개의 단어로 기술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때때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상담심리학은 전통적으로 임상심리학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해온 것 같다. 임상심리학에서 심리검사 및 사정(assessment), 상담/심리치료를 비롯한 처치개입을 그 중요한 학문주제 혹은 전문활동으로 취해온 것과 같이 상담심리학에서도 그것들을 주요 주제 혹은 활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학문의 역사, 학자의 수, 대학

원 프로그램의 수 등에서 상담심리학 보다 임상심리학이 우위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와 매우 유사한 탐구주제를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학으로서 그 학문의 정체성 확보라는 점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나 싶다. 그런데 최근의 상담심리학분야 미국문헌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러한 학문성격 상의 정체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담심리학계에서 그 학문의 성격과 최근의 연구주제 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노력은 이른바 논문편람(Handbook)을 펴내는 일이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 본 논문은 '1994 한국심리학회 동계 연수회'에 발표된 것임.

상담심리학 논문편람은 아마도 Brown과 Lent(1984, 1992)의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일 것이다. 이들은 상담심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담심리학은 진로(직업), 교육, 개인적응상의 곤란함을 치료, 예방하는데 관한 지식을 과학적 방법으로 생산하고 적용하고 유포시키는 데 관여하는 응용심리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xi)

최근에 Clara E. Hill(1993)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의 편집장을 맡으면서 Editorial을 쓴 바 있다. 거기서 그녀는 JCP의 편집정책을 밝히면서 상담심리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상담심리학이 다루는 분야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상담심리학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담당하는 세가지 역할과 다섯가지 주요관점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의가 될 것이다 (Gelso & Fretz, 1992). 세가지 주요 역할이란 (a) 치료적 역할 (문제를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보조적 역할을 포함), (b) 예방적 역할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피하고, 방지하는 역할), (c) 교육적, 발달적 역할 (잠재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역할)등이다. 이들 세 역할은 유관학문(예컨대, 임상심리학, 사회사업)과 유사성을 갖지만 그들과의 차이점을 든다면 이런 역할이 실제로 실행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a) 심한 비정상인보다는 정상인에게 주목한다, (b) 문제보다는 장점, 힘, 긍정적 정신건강에 대해 주목한다, (c) 비교적 간단하고 단기적인 개입방법을 강조한다. (d)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인간 혹은 환경을 분리해서 선택하는 관점보다는), (e) 교

육 및 진로발달에 대해 강조한다는 점등이 상담심리학의 특징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p. 252)

상담심리학에 대한 이들 두 정의는 그 내용면에서 서로 거의 유사하다. 이 점은 상담심리학의 성격이 현재 그 정체성을 상당한 수준 확립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의 예방이나 치료라는 기능면에서는 임상심리학이 표방하는 기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교육 및 성장지원의 기능은 상담심리학이 더 강조하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 ‘비정상인’ 보다는 ‘정상인’들의 진로, 직업, 교육, 생활적응 등에 초점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담심리학의 주요 관심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현상을 보는 관점도 병리적 측면보다는 건강한 측면과 힘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국내의 문헌에서는 상담심리학을 정의한 진술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담’을 정의한 진술들은 많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상담에 관한 심리학적 학문 즉 상담심리학의 성격을 정의한 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 서적들도 상담방법이나 이론, 혹은 심리치료법에 관한 서적은 다수 나와 있어도 ‘상담심리학’의 명칭을 가진 책은 매우 드물다(예: 이장호, 1986).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영역의 정체성이 성숙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상담심리학자들이 종사하는 직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그 학문의 성격 파악에 간접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80년대 후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상담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약 50%는 그 첫 근무지로서 대학을 선택하는데 그중의 대다수는 대학카운슬링센터에서 카운슬러로 취직되며 일부는 학과

의 교수가 된다. 이런 현상은 30년전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과거와 비교해서 80년대 후반의 큰 변화는 사실상담개업 즉, private practice를 선택하는 상담심리학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VA(퇴역군인보훈) 병원을 포함해서 종합병원이나 지역정신건강센터에 취직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라고 한다 (Fretz & Simon, 1992). 이렇게 의료기관 혹은 의학적 모델로 세워진 기관에 취직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즉, 병리보다는 개인의 강점과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적, 발달적 관점을 많이 취하는 학문적 성격이 상담심리학자들의 진로선택경향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2. 상담심리학의 적용분야

상담심리학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심리학의 최근경향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론이나 연구분야보다 실제에의 적용분야를 먼저 등장시킨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응용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계현, 1990a; 이장호, 1982, 1986; Brown & Lent, 1984, 1992). 상담심리학이 실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앞장에서 논의한 상담심리학의 성격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찰 방법으로는 상담심리학분야의 문헌이 풍부하고 자료입수가 용이한 미국의 상황을 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필요에 따라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

가. 상담심리학의 전통적인 두 적용분야

미국에서 (넓게 보면, 서구에서) 상담심리학의 적용분야는 크게 두 줄기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줄기는 진로발달, 진로선택, 직업적응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며, 또 다른 줄기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주로 다루는 분야이다. 첫번째 분야는 직업/진로상담 (vocational/career counseling 혹은 guidance), 두번째 분야는 심리상담 혹은 사적상담 (psychological 혹은 personal /interpersonal counseling)이라고 불려져왔다.

(1) 직업/진로 상담의 과거와 현재

역사적으로 볼때, 직업/진로상담 영역은 1930년대 대공황기간의 직업운동(vocational movement), 제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이후에 전역군인들의 직업귀환문제 등과 연관지어서 그 분야의 발전이 촉발되었었다(Gibson & Mitchell, 1990). 이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탐구되어오는 전통적인 주제들로써는 직업흥미 혹은 직업적성의 측정, 직장에의 적응과 직무만족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 직업선택 혹은 진로결정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등이다.

이 진로/직업 상담분야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상담심리학에서 중심분야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와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런 의사결정(인지과정)이 실제로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이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각되고있다(Phillips, 1992).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진로의 사결정의 부전현상(career indecision)이 새로운 탐구주제로 부상되기도 하였다(Betz, 1992). 그 외에도 진로의식이나 진로행동에 관한 남녀간 성차 연구, 문화간 연구 등 개인차가 새로운

변인으로 개입되고 있다.

상담심리학 크게 보면 심리학 전반적으로 한 개인의 행동을 단독으로 연구하는 관점보다는 타인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총체적인 역동과정을 연구하려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 직업/진로상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런 상호작용 관점을 채택하기 시작한다고 보인다. 즉, 직업적응이나 직무만족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서는 인간-환경 상호작용 관점 즉, 인간-직업 상호작용의 관점이 주로 채택된다(Hackett & Lent, 1992). 이러한 관점변화는 '진로심리학'의 이론구성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상담실무에서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의 차원 이외에 새로운 적용분야가 나타난다. 예컨대, 직장인을 위한 상담이 증가하여 '조직상담 심리학'(organizational counseling psychology)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이름의 영역이 등장하기도 한다(Gerstein & Shullman, 1992). 그 외에 중년기의 진로변경, 은퇴후 생활관리, 레저상담 등이 새로운 진로/직업상담의 분야로 개척되기도 하였다.

(2) 심리/대인문제 상담의 과거와 현재

상담심리학에서 또하나의 주 적용분야는 심리상담 즉, 정서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문제, 정신건강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다. 직업/진로상담이 주로 정보제공, 의사결정, 조언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면, 심리상담은 주로 치료, 교정, 예방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분은 완전한 구분은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은 물론이다.

정서문제는 전통적으로 불안, 공포, 우울이 자주 연구되었다. 특히 불안과 공포는 정신역동이론에서 핵심적으로 여겨온 정서라는 점,

행동치료 및 인지치료에 의해서 의미있는 치료 효과가 검증되어왔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심리치료/상담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치료사례 보고, 새로운 치료법 등이 제시되어 왔다. 증상론, 원인론, 치료방법, 효과에 대한 연구 등 학술적으로 다방면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되어있는 분야이다(Deffenbacher, 1992). 성격장애는 최근 정신병리학분야는 물론 상담심리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이다. 대인관계문제는 정서나 성격과 분리할수 없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공포, 자기주장이나 자기표현능력의 부족 등의 측면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었다(Galassi & Bruch, 1992).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치료법들이 대대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이 불안 및 우울, 성격장애의 연구에 대해서는 타분야의 발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논의는 피한다.

심리상담은 심리치료라는 용어와 종종 별 구분없이(interchangeably) 사용된다. 이점에서 볼때 심리상담은 정신의학에서의 정신치료, 임상심리학에서의 심리치료와 상당한 정도는 중복되는 영역이다. 다루는 문제의 영역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법을 접근하는 이론에서 모두 중복이 많다. 그러나 임상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 비교해서 상담심리학에서는 문제의 병리학적 분류나 설명, 원인론 연구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 경감시키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집단연습(훈련) 프로그램, 싸이코드라마 등 방법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즉 개입방법의 개발과 효과 검증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치료 및 상담의 과정, 치료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 즉, '과정-성과연구'(process-outcome research)는 상담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이는 다음절 즉 연구에 관한

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실증적 연구는 직업/진로상담영역보다 심리상담영역에서 훨씬 더 활발하다. 특히 상담과정-성과 연구는 진로상담보다는 주로 심리상담이 분석되곤 한다. 이는 아마도 상담과정이나 상담방법에 관한 이론들이 주로 심리상담을 가정한채 설정되어 왔다는데에 기인할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상담심리학은 심리상담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라고 인식할 우려마저 있는데 이는 시정을 요하는 약간 잘못된 인식일수 있다. 상담심리학은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진로/직업상담, 교육상담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로/직업상담의 목적 및 과정은 심리상담의 목적 및 과정과 다를 것이라라는 가정이 요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동일성의 신화(uniformity myth) 참조) 이 가정은 가정의 수준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직업/진로상담의 과정과 심리/성격 상담의 과정을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상담심리학에서 최근에 새로 나타나는 적용분야

(1) 의료영역에서 상담심리학의 적용

심리학이 의료영역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몇가지 이점을 통해서인데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행동의학(behavioral medicine) 등이 그것이다. 신체질병의 원인은 물론 치료과정도 심리적으로요소가 관련되어 있음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있다. 신체질병이나 고통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심리학의 역할과 공헌은 앞으로 계속 기대해볼 부분임에 틀림없다. Altmaier와 Johnson(1992)은 상담심리학이 세가지 측면에서 의료영역에 적용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예방의학에의 참여이다. 안전미의

사용이 교통사고사망율을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아도 자발적인 안전띠 착용자 증가에 한계가 있듯이, 담배와 암과의 인과론적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어도 그런 지식이 담배끊기행동으로 이어지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예방지식이 예방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방의학에 좀더 강력한 교육적인 방법이 첨가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건강에 관한 지식이 건강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건강통제관념 (health locus of control: Lau & Ware, 1982, 재인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는의 관념이 예방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다. 이와같이 예방(건강)지식을 예방(건강)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교육방법에 대해서 상담심리학자의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교육(psycho-education)이 상담심리학의 중요한 영역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방의학에의 공헌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둘째는 상담심리학자들이 질병관리 및 적응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다. Altmaier와 Johnson은 어린이 백혈병, 만성통증, 노인성치매 등 세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상담심리학자가 질병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했다.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질병의 수용, 거부 등), 증상 악화에 대한 반응, 환자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가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카운슬링, 질병처치에 가족을 가담시키고 교육시키는 활동 등에 상담심리학자가 공헌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이 환자와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상담심리학자들이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환자의 관계, 면접방법, 처치과정의 심리학

적 요인(예 : 약을 처방할때 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방식에 따라 환자의 약에 대한 믿음, 약을 지시대로 복용할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등은 상담심리학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주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상담심리학은 인간의 병적 측면보다는 건강한 측면과 강한 측면을 부각시켜 왔다는 점에서 의료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줄수 있다.

(2) 교육상담

교육상담은 상담심리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상담심리학이 발달된 주요 세팅중의 하나가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상담 혹은 대학상담이 주로 진로/직업상담이나 심리/성격상담에 치중되어서 학생들의 학업부진,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상담심리학의 주요영역에서 오래동안 주목을 받지못했었다. 이 주제는 주로 교육심리학자나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담심리학은 다분히 "심리환원주의" 같은 것에 빠져서 학업부진문제나 진로문제도 대부분 심리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띄기도 했었다.

교육상담분야는 상담심리학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업성적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실제적 요구를 부응해야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요청되는 분야이다. 최근 한국의 임상심리학자나 교육심리학자들 중에 중고교학생들의 성적스트레스나 공부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는데(예: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앞으로는 이 문제에 상담심리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대학에서의 학업문제 역시 중요한 주제가

다. 미국에서는(물론 연구의 편이성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대학생들의 학업부진 원인,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 등이 연구되고 효과검증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Russell & Petrie, 1992). 미국에서 주로 연구된 변인들은 적성, 지능, 공부방법, 시간관리, 시험불안, 학업동기, 본인의 능력에 대한 관념, 노력에 대한 귀인, 생활스트레스, 주위의 지원, 캠퍼스환경 변인, 취업(아르바이트)여부, 가족, 학습환경, 성격, 내외통제 관념, 자긍심 등이다. 학습부진에 대한 개입방법은 주로 개인상담이나 집단교육인데 그 내용은 주로 공부방법(study skill) 중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How to Study 프로그램을 모방한 소집단 교육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기도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연구는 거의 드물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생중 학업실패를 하는(예컨대 학점이 4.0만점 기준으로 평균 2.0이하) 학생이 어느정도인지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특히 서울대학 등 세칭 일류대학은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적 가치를 대부분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서 대학에 합격한 후에 대학공부에서 실패한다는 결과는 매우 불행한(학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대학생들의 학업실패의 원인과 그 치료, 예방, 극복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나름의 가설들을 세워서 시급히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담심리학자가 대학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제의 연구가 매우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약물남용

미국에서 향정신성물질의 남용문제는 심리

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이다. 상담심리학자는 초등,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에서, VA병원등지에서 약물사용자들의 예방, 중단프로그램, 갱생 프로그램, 사회나 가족에의 귀환교육 등의 실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실무의 차원에서 상담심리학자들이 약물남용문제에 가담하는 정도에 비해서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나 *The Counseling Psychologist* 등의 학술지에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연구물이 출판되는 빈도는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다(Olson, Horan, & Polansky, 1992). 즉, 적용분야에서의 활동은 활발한데 비해서 과학적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면에서는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질남용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향정신성물질을 복용해본 적이 있거나, 일년에 몇차례 복용하는 가벼운 사용자 수에 비해서 물질을 매일 혹은 한달에 몇번 이상 상습하는 심한 복용자의 수는 현저하게 적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대마초 가벼운 복용자가 전체 응답자의 47.2%인데 비해서 상습복용자는 2.7%이고 코카인의 가벼운 복용자가 12.1%인데 비해서 상습복용자는 0.2%였다(Olson 등, 1992). 바꾸어 말하면 향정신성물질을 자주 심하게 사용하는 자보다 비정기적으로 소량사용하는 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상습예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약물의 상습복용자를 위한 개입방법과 비상습 가벼운 사용자를 위한 개입목적과 방법은 다를 것이다. 상담심리학자는 주로 비사용자, 비상습 가벼운 사용자 즉 정상인들이 상습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의 활동과 연구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장면에서의 예방교육은 상담심리학자들이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할 영역으로 보인다.

(4) 성인기 생활변화

상담심리학이 진로, 교육, 발달 등의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담심리학의 적용대상은 그 연령층이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에 많이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상담심리학은 성인기 이후 즉, 중년기와 노년기의 내담자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는 몇가지 가정이 있다(Gibson & Brown, 1992). 첫째는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노년기를 단순하게 인생의 종결기라고 소극적으로 보지 않고 노년기를 좀더 의미있게 보내려 하고 있다. 둘째는 심리학 특히 발달심리학에서 전생애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는 발달심리학은 곧 아동심리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근래에는 성인기 이후의 생활주기, 생활의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적응 부적응 등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담심리학에서는 성인기 이후와 관련해서 크게 세가지 주제가 다루어진다. 첫째는 진로 적응 및 진로변경의 주제이다. 영어로는 mid-career change라고 해서 성인기동안 가지고 있던 직업을 중년기에 바꾸는 인구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안정을 얻은 중년기에 좀더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일을 하면서 중년기와 노년기까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Loughary & Ripley, 1976).

둘째는 생활변화와 관련된 주제이다. 성인기 이후에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중요한 변화는 결혼, 이혼, 자녀출생, 직업진출, 실직, 은

퇴, 큰 질병, 배우자 사별 등이다. 이런 사건들은 개인과 가족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다. 결혼이나 자녀출생처럼 행복감을 주는 긍정적인 사건들도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Greenberg, 1987). 여기서 주로 대두되는 개념은 대처(coping)인데 성인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능동적 능률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활동에 많은 적용과 연구가 실행된다.

세제는 노인상담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기에는 은퇴, 심한 질병, 신체고통, 배우자 사별, 소외와 외로움 등의 문제를 많이 겪는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학과 사회복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에는 심리학에서도 노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다(윤진, 1985). 상담심리학자들은 노인들이 그런 생활 변화사건으로 야기되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에 적응, 해결, 관리,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시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노인상담은 심리상담을 비롯해서 은퇴자금관리, 건강관리, 사회적 가족적 지원체제유지, 여가활용(레저) 등 다각적인 방면의 카운슬링이 적용되어야 한다(Tinsley & Schwendener-Holt, 1992).

3. 상담방법의 최근경향

가. 심리치료의 전통적 이론들과 상담심리학자들의 이론적 기호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주로 정신분석, 내담자중심상담, 행동수정 혹은 행동치료 등 심리치료방법에 관한 이론과 기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상담심리학을 머리에 떠올릴때 몇가지의 심리치료이론을 가장 먼저 연상할 것이다. 이만큼 심리치료이론은 상담심리학에 심대

한 영향을 주었다.

흔히 서구의 심리학을 역사적으로 네개의 "세력"으로 기술하기도 한다(Mahoney & Patterson, 1992). 첫째는 정신분석적 이론이고, 둘째는 행동주의 심리학, 세째는 실존/인본주의 심리학, 네째는 인지심리학이다. 이들 네 이론은 인간의 심리 및 행동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R. Corsini는 Current Psychotherapies라는 이름으로 심리치료방법서를 출판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판은 1989년의 제4판이다. 국내에서는 제3판이 이창호와 김정희(1992)에 의해서 번역된 바 있다. 제4판에서는 15가지의 심리치료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신분석, 아들러식 심리치료, 융의 분석적 심리치료, 인간중심 심리치료, 합리적-정서적 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스탈트치료, 실존심리치료,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가족치료, 중다양식적 치료 (Multimodal Therapy), 아시아의 심리치료 방법들, 싸이코드라마, 바이오에너지 분석 등이다.

Watkins, Lopez, Campbell 과 Himmell(1986)의 연구에 의하면 73%의 응답율을 보인 (N=716) 조사연구에서 상담심리학자들의 이론적 선호는 절충(40.2%), 인지적(11.0%), 정신역동적(10.4%), 로저리언(7.6%), 행동치료(6.2%)의 순으로 나타났다(Fretz & Simon, 1992 재인용).

나. 이론의 수렴 현상

Corsini 등(1989)이 대표적인 심리치료방법만도 15가지를 엄선하였고 크고 작은 것을 모두 망라한다면 250가지가 된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들이 다 다른 이론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

지만 이들 다양한 심리치료방법들은 그 저변에 이론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

이 이론들 중에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 논리, 인간관, 연구방법 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이론을 믿는 경우 다른 이론들을 배격해야할 입장에 처해지기도 한다. 상담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하거나 상담실무를 한다고 할때 우리는 종종 '당신이 따르는 이론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하는데, 이때 어느 특정이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경험한다. 특히 대학원생들 중에는 자기가 상담이론들 중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은 '절충(eclectic)' 입장을 취한다는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자기의 이론적 입장을 밝히려는 조사에서 정신분석/정신역동적 이론보다 절충입장이 우세해지는 경향이었고 그 차이는 80년대에 더욱 확실해졌다.(Mahoney & Patterson, 1992).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심리학자들이 어느 한 이론 특히 정신역동적 이론을 취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여러 이론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실제상 즉, 사례를 다루는데 편리하거나 혹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인간행동/심리문제의 원인 그리고 행동/심리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들이 어떤 방식이론가 통합 혹은 수렴되어가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Mahoney는 그의 동료들과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심리치료의 요소로서 치료자의 이론경향이나 치료의 길이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료자의 성격, 경력(경험), 내담자가 주위에서 지지받는 정도, 치료 동기, 자

긍심,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치료적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심리치료 이론들은 행동, 감정(정서), 혹은 인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강조했었다. 즉, 변화의 시발적인 동인(prime mover)으로서 그 세 요소 중 하나를 강조하는, 예컨대, 정신역동이론은 감정을, 행동치료는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이론가들은 그러한 선택을 포기했다고 보인다. 그들 세 요소는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다른 이론적인 큰 변화는 인간을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 개체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은 개체 즉,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부각시킨 이론(reciprocal determinism)을 쉽게 수용하게 한다. 개인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인지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다시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에 의해서 개체가 영향을 받는 순환적인 인과론이 상담심리학에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다. 상담의 단기화

상담을 통해 치료 혹은 문제해결에 이르는 시간 즉, 상담기간에 관한 논의는 심리치료/심리상담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60-70년대에는 수십회이상의 정신역동적 장기치료를 10회-25회 정도로 줄이는 모델이 주로 제기되었다(Davankov, 1980). 최근에는 10회미만의 더 짧은 치료, 상담방법들이 제안된다(이장호, 1991).

(1) 상담 단기화의 필요성과 배경

미국대학상담소의 경우 80년대 말경 단기상담의 모델과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대학학생처와 학생회에서 장기상담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내담자 1인당 보통 1년 이상의 장기상담을 하는 경우 전임카운슬러 1인당 상담받을 수 있는 내담자수는 극히 제한되며 으레히 상담신청자 대기명단은 길어져서 내담자들이 상담을 필요로할때 신속하고 적합한 처치개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지적당한 대학상담소들은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좀더 짧은 시간 내에 대학생내담자들에게 필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는 한 학기 즉 10회-15회 이내에 상담을 마치도록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보다 장기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상담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장기집단치료에 들어가게 하거나, 혹은 사비로 장기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신병원, 개업정신의, 개업심리학자들도 단기상담, 치료의 요구를 받게되었다. 그 주요이유는 보험(health insurance)과 직결된다.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정신치료나 상담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불해주지만 상담횟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한을 하지않는 경우에 치료자와 환자가 짜고 필요이상으로 치료기간을 늘리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이다. 보험회사로부터 제3자 지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치료기간을 단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결국 단기에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담방법의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기업체들이 직원들을 위해 도입한 상담제도 역시 단기상담을 조건으로 한다. 기업체들은

상담심리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는 대신에 상담심리학자와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자기네 직원들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상담비를 지불해주는 방식을 종종 쓴다. 단 이때 소정의 횟수(예: 3회-6회)까지는 회사가 상담비를 지불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지불해야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인다. 이런 형태의 상담에서도 심리학자는 단기에 소정의 효과를 내야하는 요구에 부딪힌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과 다소 다르다. 정신의의 '정신치료'는 보험커버를 받지만 심리학자의 상담은 보험과 관계가 없다. 직원의 상담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회사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료상담의 경우 장기간 상담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상담의 요구가 생긴다. 그외에도 다른 몇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상담의 요구가 생긴다. 대학에서는 일년에 두차례 8-12주의 긴 방학이 있다는 학기제도 등이 대학에서 상담을 10회 내외로 운영하도록 영향을 준다. 졸업이나 군입대, 휴학을 얼마 남기지 않고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가 풀올대로 풀아서 막바지에 가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또 치료개입에 대해서 장기적인 처치를 꾸준히 받는 것보다는 단방에 차도가 있기를 기대하는 치료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 역시 관계가 있다(김계현, 1990a).

(2) 단기상담 기술의 다양한 개발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상담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계현(1990b, 1993), 이장호(1991), 최해림(1991) 등의 논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장호(1991)가 요약한 단기상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담시간의 제한

성, 상담목표의 제한성, 치료적 초점, 상담자의 즉각적인 개입, 문제해결적 접근, 긍정적인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중시, 상담에 대한 친절한 구조화, 정서적 지원 및 내담자의 장점 격려, 직접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단기치료,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어떤 종류의 처치개입에 적합할지를 상담자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점에 있어서는 Kim Berg가 그녀의 동료들과(Kim Berg & Miller, 1992; Shazer, 1985) 고안한 모델 즉, 내담자-상담자 관계를 '방문객(Visitor)', '불평자(Complainant)' '고객(Customer)'의 세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심리학자와 가족치료자들에게 도입되고 있다. 내담자의 타입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과제부여나 조언부여를 한다는 점도 이 모델의 특징이다. 이 아이디어는 본래는 가족치료와 알코올남용문제의 상담에서 시도되었던 것인데, 김계현(1993)은 이 아이디어를 대학상담소에 적용하여 방문객에는 강제로 보내어진 내담자, 강제로 이끌려온 내담자(대학에는 매우 드물고 아동청소년 상담에 많다), 상담소를 탐색하러온 내담자("Investigator"), 손쉬운 치료법을 찾는 사람("Easy Drug Seeker") 등이 있고, 불평자 중에는 남을 불평하는 타입과 자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두 타입이 있고, 고객에도 반복적인 통찰이나 심리적 지원을 추구하는 타입("Drug Taker")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타입등이 있음을 주장했다. 단기상담에서 이렇게 내담자의 타입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원함 즉,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는 곧 상담의 목표설정, 상담자-내담자 관계설정 등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담의 성공과 실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기상담에서 가장 짧은 형태인 단회치료/

상담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이 분야의 최초의 저서인 Talmon(1991)의 Single Session Therapy는 저자 자신이 수많은 단회상담사례들을 분석하고 추수연구하여 효과적인 단회치료방법들을 개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위해 처음으로 상담소에 전화를 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적 관계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첫만남에서 '전화를 하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문제행동/증상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반드시 파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내담자가 상담소에 오기 하루나 이틀전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상담에 오기전까지 일종의 과제를 부여한다는 점도 매우 특이하다. 김계현(1992a)의 단회상담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단회상담이 이루어지는 각종 상황들을 정리하고 (전화상담, 방송전화상담, 자문목적의 상담, 진로지도, 의사결정상담, 정보제공상담, 응급상담 등) 다음과 같은 단회상담의 기술들을 제안하였다-- 단회여부의 재빠른 결정,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 내담자의 원함과 상담목표의 합의, 상담자가 능동적으로 대화과정 조절, 상담자는 융통성과 단호함을 겸비, 내담자의 문제해결 동기 유지, 조언이나 지시의 적절한 활용, 직면의 기술적 활용, 탈이론적 융통성 등.

4. 상담 과정-성과 연구 (process and outcome research)

상담과정은 상담시간 동안에 발생한 상담자 혹은 내담자의 행동, 정서, 인지, 상담자-내담자 간의 상호작용 모두를 지칭한다. 상담성과는 이런 상담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를 지칭한다. 예전에는 상담과정연구와 상담성과

연구가 분리되어 있었다. 예컨대 과거의 상담 과정 연구는 회기 중에 상담자의 감정반영과 해석이 각각 몇번씩 발생했는지, 상담자 감정 반영의 빈도와 내담자 감정표현의 빈도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성과연구의 전형적인 예로는 어떤 처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로서 통제집단과의 성과점수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런 성과연구에서는 상담과정 중에 무엇이 발생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Kiesler(1980)는 이런 과정과 성과가 따로 연구되어지는 것을 비판하고 과정-성과연구모델을 주장했다. 즉, 상담과정연구는 성과변인을 포함시키고, 성과연구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하거나 과정변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요즘에는 상담과정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빈번히 시도되고 있으며 모종의 상담성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하는 상담심리학 본연의 탐구과제가 부각되고 있다(Wampold & Poulin, 1992).

상담과정-성과연구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논문으로는 Hill과 Corbett(1993)의 미국심리학회 100주년 기념논문을 비롯해서 Orlinsky와 Howard(1986), Garfield(1986), 그리고 Beutler, Crago와 Arizmendi(1986)등의 논문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가. 상담과정과 성과의 측정문제

상담과정연구에는 녹음기술, 녹화기술의 발명이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정신분석가들 중에는 요즘도 녹음, 녹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연구목적 혹은 교육목적으로 상담의 전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연구를 위해 녹음된 자료

즉, 치료자와 내담자의 말은 몇개의 유목으로 분류, 코딩된 다음 통계방법에 의해 분석된다. 과거에는 주로 그 회기에 발생한 어떤 언어행동의 빈도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언어 이외에도 체험수준, 목소리의 질, 회기에 대한 느낌,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느낌 등도 측정되었다.

상담과정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Heppner, Kivlighan & Wampold(1992)는 이렇게 분류했다. 여섯가지 종류의 상담자, 내담자행동이 측정된다: (1)상담내용(content) 즉, 상담되어지는 주제, (2)외현행동(action)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한 언어나 기타 관찰가능한 외현행동 (표정, 고개끄덕임, 제스추어), (3)방식(style) 즉,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이 되어지는 양식, (4)의도(intentions)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대방에게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효과, (5)질(quality) 즉, 상담자가 어떤 처치개입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6)반응(reactions)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 (주관적임). 이들 여섯가지의 과정변인은 각각 미시수준의 측정(micro level)과 거시수준의 측정(global level) 두가지의 측정방법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그외에 상-내 관계과정(relationship process)에 대한 측정등이 있다.

Eysenck(1952)의 심리치료의 효과가 자연치유율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논문이래 성과연구가 활발해졌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여러 성과연구들을 종합하여 심리치료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종전의 성과연구들에는 방법론적 문제점이 많았는데 최근 몇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있다. Hill과 Corbett(1993)는 상담성과연구에서

적용해야 할 몇가지 방법론적 보완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상담성과의 측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자기보고, 행동측정, 생리측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내담자, 상담자, 훈련된 평가자, 내담자의 친지) 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며 그런 측정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치의 주요구성요소와 절차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만약 처치의 효과가 있는것으로 검증되더라도 처치의 구성요소와 절차가 상술되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효과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상담자(치료자)변인의 효과와 치료방법변인의 효과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두가지 상담방법의 성과를 비교한다면 각 상담방법에 10명 이상씩의 상담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 넷째, 통계적 의의에 연연해하지 말고 임상적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5점 리커트척도상 3.0과 3.6의 차이는 설사 통계적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임상적 의의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나. 과정-성과 연구의 최근 이슈들: 연구주제

(1) 상호작용(직선적 인과론보다는 순환적 인과론)

상담자의 어떤 행동은 내담자의 어떤 행동을 유발한다는 식의 선형적 즉, 직선적 인과론은 상담과정연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 회기 안에서도 예컨대 내담자의 감정표현에 뒤따른 상담자의 반영과 같은 연계(sequence)는 수십차례 발생하는 연계고리이고, 또 상담자의 반영에 뒤따른 내담자의 감정표현 역시 수십번 발생하는 연계고리이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선적 인과모델보다는 순환적(circular) 인과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상담자의 행동과

내담자의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상담과정 연구의 최근 관심이다. 이런 상호작용 관점은 최근 유행하는 가족치료나 대인치료법(interpersonal therapy) 등이 이론적 근거로 의지하는 시스템이론 및 의사소통이론(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상-내 상호작용에서 최근 가장 빈번히 탐구되어 온 주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보적/대칭적 관계유형과 상담의 즉시적 혹은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 빈번히 연구되고 있다.

(2) 기술사용의 질과 연계분석방법

종전의 상담과정 연구들은 상담자 행동과 내담자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단순상관분석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한 세션에서 상담자의 해석은 내담자의 체험수준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연구할때 해석의 빈도와 체험수준과의 단순상관을 내었다. 이 연구방법론에는 한 회기에서 해석의 빈도가 높으면 바람직한 상담이다라는 가정이 깔려있는데, 요즘은 상담기술이 사용되는 시기 즉 타이밍, 그 기술을 사용하는 전후 맥락, 그리고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과정 즉 질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런 기술사용의 타이밍, 맥락, 질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매우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널리 사용되어지는 연계분석방법(sequential analysis)이 그러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또 많은 연구에서 빈도분석에 의한 단순상관분석보다 연계분석에 의한 연구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Wampold & Kim, 1989).

(3) 주요사건 (significant events)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을 밝히려는 것은 상담심리학의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에는 상담회기 중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 즉, 중요 순간을 포착하여 그 사건의 전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생겨나고 있다(국내 연구의 예 : 문형춘, 1993; 손은령, 1994). 만약 한회기의 상담이 40분간 지속되었다면 그 40분 동안 모두 똑같은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변화무쌍했을 것이며 그중 어느 시점에는 내담자 변화에 동인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아직 중대한 방법론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담중 주요사건의 정의, 그리고 주요사건의 측정이다. 왜냐하면 주요사건이 매우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상담과정의 인지적 측면

초기의 상담과정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외현행동을 주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이후 상담자와 내담자의 내면행동 특히 인지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로 연구된 인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도(intentions)와 정서적 인지적 반응(reactions) 그리고 상-내 간 상대방의 의도나 심리상태에 대한 인식 즉, 알아차림(awareness)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내면과정이 연구에 포함될때 본래 매우 복잡한 상담과정현상을 좀더 완전하게 그려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왔다. '인지중개모델'(cognitive-mediational model)^c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외현행동과 내

면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혀보려는 시도이다(예 : Hill & O'Grady, 1985; Martin, 1984). 이 모델에 의하면, 상담자의 개입행동은 내담자에게서 모종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상담자의 의도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상담자의 개입행동 뒤에는 내담자의 반응(인지적, 정서적)이 뒤따르며, 후속해서 상담자에 대해 모종의 효과를 내고자하는 내담자의 의도가 발생하고, 뒤이어서 내담자의 행동이 발생한다. 내담자의 행동은 다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인지적, 정서적)을 불러일으키고, 뒤이어 수정된 상담자 의도가 발생한다. 이런식의 과정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내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간다는 모델이다. 이러한 상담과정의 인지측면에 대한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개관한 논문을 최근에 금명자와 이상호(1992)가 발표한 바있다.

(5) 슈퍼비전 연구

상담자교육은 상담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주제였다. 상담자교육을 위한 모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이 이 영역의 핵심주제이다. 요즘은 특히 상담의 전과정을 녹음 혹은 녹화한 테이프를 활용한 일대일 개인 슈퍼비전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연구도 역시 개인슈퍼비전에 관한 논문과 저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학술지로는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이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고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서는 이 상담자교육의 주제를 다루는 섹션을 두고 있다.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주제로는 상담과정-성과 연구와 대동소이한 연구모델을 사용하여 슈퍼바이저-수련생간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 간의 연결을 모색하는 연구, 슈퍼비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의 타당성 연구, 수련생과 슈퍼바이

저의 효율적인 짝짓기(매칭)의 문제 등이 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Holloway, in press). 우리나라에서는 김계현(1992b)이 세계의 개인슈퍼비전사례를 미세하게 분석하여 상담자교육의 모델설정에 활용한 논문이 있다.

(6) 동일성 미신 (uniformity myth)의 극복

과거의 상담과정-성과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차, 상담자의 개인차를 연구에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었다. 예컨대, 로저스식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상담자의 감정반영기술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등이 전형적인 연구문제 기술방식이었다. 이 동일성 미신(UM)은 결과의 일반화 이슈와 관련이 있다. 즉, 만약 로저스식 심리치료의 효과에 관한 하나의 연구결과 치료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종류의 내담자나 상담자들에게도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일반화 제한성이 쉽게 제기되는 것이다.

UM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심리학자들은 상담자의 성을 연구변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종, 민족적 배경을 연구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그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연령, 상담자의 전문적 경력, 상담자의 이론적 선호 등도 연구변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UM이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만약 상담자의 성 즉, 그가 남자 혹은 여자라는 사실이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런 의미가 상담과정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하지못한채 단지 상담자의 성이 관계하는 변량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친다면 UM이슈의 진정한 취지가 약화된다고(Hill & Corbett,

1993).

이 UM이슈와 관련해서 문화간 연구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간에 문화권간에 상담과정, 상담방법, 상담에 대한 기대, 내담자와 상담자가 관계맺는 방식 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문화국가인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단일문화권이라고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점은 필요한데, 예컨대 고소득 계층인과 저소득계층인 간에는 상담에 대한 기대나 관념 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구화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간에도 상담에 접근하는 행동이 매우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다른 상담방법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다. 새로 시도되는 연구방법론

(1) 모의상담 연구설계의 쇠퇴와 실제상담 연구의 재현

초기의(1950년대) 상담과정연구는 '진짜' 상담을 연구했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반부에는 모의상담연구가 유행했다. 그러나 이 모의상담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문제로 인해서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모의상담연구설계가 적합한 연구주제가 있으나 상담과정의 연구에는 적합치 않다. 그대신 다시 실제상담의 연구가 되돌아왔는데 다행히 측정방법의 발달, 자료분석기법의 발달,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대형컴퓨터기능의 출현 덕분에 실상담연구가 과거보다 훨씬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Hepner 등, 1992).

(2) 사례연구의 정착

심리치료나 상담의 초기 사례연구들은 연구자의 주관이나 지나치게 작용하거나 연구자료가 체계적, 객관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수집된다는 점등을 들어서 과학적 연구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례연구가 유행한 것은 행동치료나 행동수정에서 주로 기저선-처치개입-기저선 (ABA)설계를 기본으로 한 연구가 많이 시도 되었다. 비행동적(nonbehavioral) 상담에 대한 연구에서는 80년대 중반에야 사례연구가 학술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비행동적상담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각 사례에서 변화를 발생시킨 요인을 탐구하는 목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행동을 기술하되 임상적 풍부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Hepner 등, 1992).

단일사례 혹은 소사례연구설계는 현재 국내 상담심리학에서도 자주 사용되어 진다(예 : 김인규, 1992; 김동민, 1993; 김선경, 1992; 손은령, 1994; 하정혜, 1994) .

(3) 발견지향 연구

최근의 상담심리학 연구에서는 발견지향(discovery-oriented) 혹은 탐색연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론에 의해 예견된 가설을 검증하는 설명적(explanatory) 연구패러다임(수집된 자료는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다)과 대조되는 연구패러다임이다. 이 연구자들은 탈이론적(무이론적) 관점에서 상담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나 유목시스템을 개발한다. 물론 발견지향 연구자들의 목적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편적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이론으로부터 추론된 가설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관찰에 의해 추출된 결과들로부터 가설을 도출하려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컨대 상담과정중에 내담자가 중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의 직전 5분동안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여러사례를 관찰해서 어떤 보편적 현상을 발견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발견지향 연구는 '이론은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Mahrer, 1988).

(4) 질적연구

질적연구가 상담심리학에서 유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체험하는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상담심리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이었다. 질적연구는 주로 기술연구(descriptive design)가 되는데 이 기술자료는 상담내 내담자와 상담자의 내적체험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아직까지도 편향되지 않은 관찰방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방법론적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Hepner 등, 1992).

라. 상담과정 연구의 미래

Hill과 Corbett(1993)는 APA 100주년 기념 논문에서 상담심리학의 과정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피력했다. 첫째, 연구결과가 상담실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상담심리학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상담이나 치료실제의 뒤에 처져있어왔다. 실천가들이 연구결과를 치료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미 제안된 이론이나 기법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흔한 연구관례가 되어 왔다. 연구와 실제간에 역할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은 어떻게 치료가 발생하는가 즉, 치료의 메카니즘, 치료와 변화의 연결 콤포넌트를 밝힘으로서 실천가들이 연구결과를 치료에 활용토록하는 선도적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다음의 변인망을 완전히 검증해야 한다. 치료前변인(문화적 변인, 성격유형), 과정 변인(치료자행동, 치료기법, 내담자행동, 상-내 관계), 즉각적 성과(조력정도의 지각, 치료적 각성), 치료외적 변인(사적 사건, 환경의 사건), 장기적 성과(증상변화, 자아개념 변화 등). 지금까지는 주로 과정과 즉각적 성과를 연결짓는 연구가 되어왔다.

세째, 상담자의 치료행동의 타이밍, 질, 치료력 등을 연구해야 한다. 이 개념들은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담과정중에 무엇이 몇번이나 발생했는가만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은 한계가 뻥하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질을 가지고 발생했는지를 기술할때 치료의 메카니즘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상담과정연구는 주로 심리상담/심리치료에 국한되어 왔는데 다른 상담의 과정도 연구해야 한다. 심리상담과정과 진로상담과정이 유사한지를 밝혀보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상담의 내용 즉, 진로선택, 대인관계의 어려움, 죽음, 성문제, 문화적 적응의 문제 등 상담에서 다루어 지는 호소내용에 따른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동일성 신화(uniformity myth)는 이렇게 상담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된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한 개념이다.

다섯째, 상담심리학은 전통적으로 내담자의 자원, 긍정적 힘, 건강한 요소에 강조점을 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면의 측정에 소홀해 왔다. 적용, 자아의 힘, 통찰 등 건강한 행동을 측정, 평가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여섯째, 심리학의 다른 분야 혹은 다른 학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5. 심리학 타분야와의 관계

상담활동의 역사에 비해서 그것이 하나의 심리학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APA 제17분과의 역사를 보면 1946년에 Division of Personnel Psychologists가 생겼고 그것의 이름이 Division of Personnel and Guidance Psychologists로, Division of Counseling and Guidance로, 그리고 1951년도에 현재의 명칭인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로 개칭되었다. 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는 1954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비교적 후발학문인 상담심리학은 심리학내의 타분야 주로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교육심리학 등의 지식을 응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여기서 상담심리학이 도움을 받은 타분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필자의 역량과 지면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본논문에서는 사회심리학과의 관계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상담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의 관계를 개관한 논문으로는 Strong, Welsh, Cocoran과 Hoyt(1992)의 APA 100주년 기념논문, Heppner와 Frazier(1992) 그리고 Brehm과 Smith(1986)의 논문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상담심리학과 사회심리학간의 관계 (Strong 등, 1992)

상담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심리학과 만난다. 첫째는 상담은 상-내 두사람 혹은 몇 사람 간의 사회적 만남과정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사회심리학의 주 관심은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이 그의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지 그 기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은 상담심리학과 주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이 상담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에 응용되는 것은 주로 세가지 주제에서이다: (1) 상담 및 치료과정, (2) 진단과정, (3) 심리증상의 설명. 이들 중 상담심리학은 주로 상담 및 치료과정 분야에서, 임상심리학은 주로 진단과정과 심리증상설명 분야에서 사회심리학을 응용했다.

Strong 등은 APA 백주년기념논문에서 사회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의 관계를 역사, 업적, 미래의 순으로 논의했다. 그들이 정리한 역사를 보면 두학문의 관계는 상담심리학이 사회심리학의 지식을 응용해서 쓰는 관계였는데, 응용이 시작된 시기는 1950년대 중반기이다. 그 시기 상담심리학자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과정을 일종의 대인영향(social influence)과정으로 인식하여,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영향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때 나온 유명한 논문이나 저서로는 Rosenthal과 Frank(1956)의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믿음의 역할, Frank(1961)의 Persuasion and Healing :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herapy, 그리고 Pepinsky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던 중 1968년 Strong의 논문에 의해서 상담과정을 대인영향의 과정으로 이론화하는 것이 성공된 이래 여러가지 후속 가설들이 제기되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는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Strong은 주로 의사소통에 의한 태도변화, 특히 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에서 자신의 가설들을 이끌어내었다. 그의 핵심가설은 '2단계 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상담의 제1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얼마

나 상담자의 전문성, 신뢰감, 인간적 매력을 느끼도록 되는가와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몰입하는 정도 등이 성공적 상담의 주요 요인이며, 둘째단계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는 정보, 의견, 해석 등을 주는데 내담자가 이 인지부조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유발된다는 가설이다. 이후 여러 후속 가설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상담과정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또다른 시도는 귀인이론을 응용하는데에서 나왔다. 이 시도는 Strong에 의해서도 시도되었지만 나중에 Caliborn(1982)에 의해서 더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는데 그는 상담/심리치료의 해석기법을 의사소통 즉, 대인영향이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해석이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가설과는 색다른 생각/가설을 상담자가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차이 때문에 내담자는 문제의 원인이나 의미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귀인을 해보도록 자극을 받는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Heider, Jones, Davis, Kelley 등 5-60년대의 귀인이론들이 응용되었었는데, 그후에는 귀인이론 자체보다도 귀인과정을 인지적으로 설명한 후속가설들이 활용되었다. 예컨대,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즉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고려하는 것이 귀인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든가, 자긍심을 지키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귀인이 편향된다는 가설등이 응용되었다. 이런 가설들을 바꾸어 말하면, 내담자의 증상행동은 자기에 대한 남들의 인식(사회지각)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가설들은 유명한 Sullivan의 대인이론(1953) 그리고 그 후속 대인치료이론(Leary, Beier, Carson, Kiesler 등이 대표적임)

과 매우 유사한 아이디어다.

이런 아이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이론가 즉 Watzlawick, Beavin, Jackson, Haley 등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연구자들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치료과정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관계를 정의해가는 과정 즉, 관계정의를 협상해가는 과정으로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내담자가 평소에 대인관계하는 과정특성이 상담실내에서 상담자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인데, 상담과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타인과 대인관계하는 과정을 변화시켜 주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아이디어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80년대 중반이후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그 이후 쏟아져나오는 상담과정분석연구 특히 연계분석방법을 이용한 상담과정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어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사회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의 아이디어를 빌어오는 일방적 관계이었다. Strong 등은 앞으로는 상담심리학이 사회심리학에 중요한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다. 사회심리학의 최근 관심사 중에는 친밀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주제는 상담심리학의 오랜 주제인 것이다. 상담심리학이 주로 장기적인 관계형성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 상담심리학이 부부관계치료 및 가족관계의 치료에 참여해왔다는 점등은 친밀관계를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상담심리학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어찌했건, 학제간 연구를 강조되는 현대의 학문동향을 생각해볼때, 이런 타분야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Heppner와 Frazier (1992) 그리고 Brehm

과 Smith(1986)의 개관논문은 지면관계로 충실히 요약하지 못함. 이 두 논문의 주 내용은 (1) 귀인이론을 이용한 상 과정의 설명뿐만 아니라 (2) 내담자의 인지적 오류, 비합리적인 사고과정을 귀인의 개념들로서 설명, (3) 내담자의 인식과정, 귀인과정, 사회인지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재귀인훈련 등에 관한 것임.)

참 고 문 헌

- 금명자, 이장호(1992). 상담상에서의 내현화과정에 관한 개관연구 : 상담과정 모델의 발달을 위한 모델, **상담과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분과회.
- 김계현(1990a). **카운셀링의 실제**, 서울:성원사.
- 김계현(1990b). 단기상담의 전략과 내담자 선택, **대학상담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대학상담학회.
- 김계현(1992a). 단기상담의 원리와 기술1, **학생연구**,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 김계현(1992b).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슈퍼비전모델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4, 19-53.
- 김계현(1993). 대학에서 단기상담의 적용, **인간이론**, 14,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동민(1993). 상담초기 작업동맹 형성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상호작용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선경(1992). 상담자-내담자 초기협조관계의 지각과 언어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인규(1992). 상담상호작용의 사례별 시계열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문형춘(1993). 초기상담에서 내담자-상담자 반

- 응 연계유형에 따른 즉시적 성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손은령(1994). 상담회기내 주요 이벤트 전후의 상담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 한국심리학회.
- 윤진(1985).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장호(1982). **상담면접의 기초**,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장호(1986). **상담심리학입문**, 서울 : 박영사.
- 이장호(1991). 단기상담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 **단기상담과 위기개입**,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장호, 김정희(1992). **현대심리치료**,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최해림(1991). 학교장면에서의 단기상담, **단기상담과 위기개입**,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하정혜(1994).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 대인관계 패턴변화에 관한 시계열 복수사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Altmaier, E. M., & Johnson, B. D.(1992). Health-Related applications of counseling psychology : Toward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across the life span.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Betz, N. E.(1992). Career assessment : A review of critical issue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New York :
- Wiley.
- Beutler, L. E., Cargo, M., & Arizmendi, T. G.(1986).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psychotherapy. In S.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New York : Wiley.
- Brehm & Smith(1986).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es to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In S.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New York : Wiley.
- Brown, S. D., & Lent, R. W.(1984).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1st ed.). New York : Wiley.
- Brown, S. D., & Lent, R. W.(1992).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Caliborn, C. D.(1982). Interpretation and chang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439-453.
- Corsini, R. J., & Wedding, D.(1989). *Current psychotherapies*. Illinois : Peacock.
- Davanloo, H.(1980).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 Jason Aronson.
- Deffenbacher, J. L.(1992). Counseling for anxiety management.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Eysenk, H. J.(1952).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 An evalu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6, 319-324.
- Frank, J. D.(1961). *Persuasion and healing* :

- parative study of psychotherapy*. Baltimore : Johns Hopkins Press.
- Fretz, B. R., & Simon, N. P.(1992).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psychology : continuity, change, and challenge.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Galassi, J. P., & Bruch, M. A.(1992). Counseling with social interaction problems : assertion and social anxiety.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Garfield, S. L.(1986). Research on client variables in psychotherapy. In S.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New York : Wiley.
- Gelso, C. J., & Fretz, B. R.(1992).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Gerstein, L. H., & Shullman, S. L.(1992). Counseling psychology and the workplace: the emergence of organizational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Gibson, J., & Brown, S. D.(1992). Counseling adults for life transition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Gibson, R. L., & Mitchell, M. H.(1990). *Introduction to counseling and guidance*. New York : Macmillan.
- Greenberg, J.S.(1987). *Stress management*. Iowa : Brown.
- Hackett, G., & Lent, R. W.(1992). Th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In S. D. Brown, & R.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Heppner, P. P., Kivilghan, D. M., & Wampold, B. E.(1992). *Research design in counseling*. California : Brooks/cole.
- Heppner, P. P., & Frazier, P. A.(1992).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in psychotherapy : Extrapolating basic research to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Hill, C. E., & O'Grady, K. E.(1985). List of therapist intentions illustrated in a case study and with therapists of varying theoretical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2.
- Hill, C. E., & Corbett, M. M.(1993). A perepective on the history of process and outcom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24.
- Holloway, E. L.(in press). *A Strategic approach to supervision*. SAGE.
- Kiesler, D. J.(1980). Psychotherapy process research : Viability and directions in the 1980s. In W. Demoor, & H. R. Wijngaarden(Eds.). *Psychotherapy : Research and Training*(pp.71-86). Amsterdam : Biomedical Press.

- Kim Berg, I., & Miller, S. D.(1992). *Working with the problem drinker*.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 Loughary, J. W., & Ripley, T. M.(1976). *Career & life planning guide*. New York : Cambridge.
- Mahoney, J. M., & Patterson, K. M.(1992). Changing theories of change : recent developments in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Mahrer, A. R.(1988). Discovery-oriented psychotherapy research : Rationale, aims, and methods. *American Psychologist*, 43, 694-702.
- Martin, J.(1984). The cognitive mediational paradigm for research o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58-571.
- Olson, C. M., Horan, J. J., & Polansky, J.(1992). counseling psychology on the problem of substance abuse.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Orlinsky, D. E., & Howard, K. I.(1986).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S.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New York : Wiley.
- Phillips, S. D.(1992). Career counseling : Choice and implementation.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Rosental, D., & Frank, J. D.(1956). Psychotherapy and the placebo effect. *Psychological Bulletin*, 53, 294-302.
- Russell, R. K., & Petrie, T. A.(1992).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assess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de Shazer, S. (1985). *Keys to solution in brief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trong, S. R. (1968). Counseling: An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215-224.
- Strong, S. R., Welsh, J. A., Corcoran, J. L., & Hoyt, W. T.(1992). Social psychology and counseling psychology : the history, products, and promise of an interfa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39-157.
- Talmon, M.(1991). *Single session therapy*. San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Tinsley, D. J., & Schwendner-Hoyt, M. J.(1992). Retirement and leisure.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 Wampold, B. E., & Kim, K. H.(1989). Sequential analysis applied to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s : A case study revisite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57-364.
- Wampold, B. E., & Poulin, K. L.(1992).

Counseling research methods: Art and artifact.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 Wiley.

Watzlawick, P., Beavin, J. H., & Jackson, D. D.(1967). *Pro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 A study of interac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wes*. New York : Norton.

Contemporary Trends of Counseling Psychology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Five topics were discussed to describe the contemporary trends of counseling psychology : (1) definitions of counseling psychology, (2) the fields to which counseling psychology is applied, (3) counseling methods, (4) research linking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and (5) related fields. The first topic discusses the identity issues in counseling psychology related to clinical psychology, which is the nearest field in psychology. The second topic disusses the two major tradit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career/vocational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third topic discusses the research linking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New research methods are also introduced. The final topic discusses how social psychology has influenced the counseling psychology.